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정기간행물 『트랜스액션』  
탐색적 연구

1900-1924년을 중심으로

이고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한국문화학 전공  
2bthebridge@gmail.com

- I. 머리말
- II. 『트랜스액션』 소개
- III. 초기 『트랜스액션』 분석
- IV. 맺음말

## I. 머리말

한국학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행한 『Pioneers of Korean Studies』는 한국학이 국내외에서 여러 갈래로 성립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sup>1)</sup> 국내에서는 1890년대 본국학으로 시작하여 일제강점기의 조선학, 해방 후의 국학과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한국학으로 변천 과정을 거쳤다.<sup>2)</sup> 해외에서는 첫째, 일제강점기·한국전쟁기에 러시아·일본·중국으로 이주한 이민자들이 학술적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시작했다. 둘째, 미국에서 동아시아 지역학으로 발생한 한국학이 있다.<sup>3)</sup> 그러나 해외 한국학의 발전 과정에서 개항기 한국에 머물며 사회와 역사·문화를 연구했던 서구인—특히 선교사—을 무시할 수 없다. 이들은 여행기 등 개인 저작뿐 아니라 공식 보고서나 『코리안 리포지토리(Korean Repository)』, 『트랜스액션(Transactions)』 같은 잡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며 한국에 관한 근대 과학적 지식을 생산했다. 특히 『트랜스액션』은 한국에 관해 전문 연구를 최초로 시도한 학술지이며, 서구 한국학 학자들이 1차 자료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학술지의 역사는 117년으로, 영국 왕립아시아학회의 한국지부(Royal Asiatic Society of Great Briton and Ireland, Korea Branch, 이하 RASKB)가 설립된 1900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계속 발행되고 있다. 『트랜스액션』은 미묘했던 서구인들의 대한(對韓) 인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백낙준은 “『트랜스액션』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전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서양의 연구와 해석 방식을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서구인들이 20세기 초에 저술한 역사학, 사회학, 고고학 논문들은 최근 연구와 새로 발견된 자료를 토대로 재검토되어야 한다”<sup>4)</sup> 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므로

1) Keong-il, Kim, *Pioneers of Korean Studies*(Seongnam: Academy of Korean Studies, 2004).

2) 위 책에서 소개한 국내 한국학 개척자는 신채호, 박은식, 유영모, 정인보, 안확, 백남운, 김태준, 안재홍, 손진태, 고유섭, 주시경이다.

3) 해외 한국학 개척자로는 Michail N. Pak(러시아), Jaeun Kang, Kajimura Hideki(일본), Piao Changyu(중국), Edward W. Wagner, Gari K. Ledyard, Peter Lee, James Palais, Bruce Cumings(미국), Martina Deuchler(유럽)를 들었다.

4) Lak-Geoon George Paik, “Seventy Years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in Korea,”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47(1972), p. 34.

『트랜스액션』을 간행 초기부터 분석하여 당시 서구인들이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을 이해했으며, 어떤 관점으로 서구의 독자들에게 한국을 소개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연구를 통해 오늘날 미국과 서구가 가지고 있는 대한(對韓) 인식의 뿌리를 밝힐 수 있다. 또한 한국과 서구가 관계를 형성한 과정에 대해 정보와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처럼 『트랜스액션』이 갖는 의미와 시사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계에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트랜스액션』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트랜스액션』에 투고된 백낙준과 류영익의 영문 논문 두 편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2014년 연구에 그친다. 백낙준은 RASKB가 70주년을 맞는 1972년, 『트랜스액션』 47호에서 한국지부의 설립 과정과 일제강점기·한국전쟁을 거치며 학회가 유지된 과정을 회고했다.<sup>5)</sup> 여기서 『트랜스액션』의 출판 과정과 당시 통계, 잡지의 내용·형식에 대해서도 개괄했다. 그 후 2005년, 류영익이 현대 한국의 사관에 서구 학자들이 미친 영향을 RASKB 중심으로 분석한 논문이 『트랜스액션』 80호에 실렸다.<sup>6)</sup> 류영익은 이 논문에서 한국을 연구하는 전문 및 아마추어 학자들이 최초로 설립한 협회가 RASKB였으며, 한국을 보다 객관적으로 연구하려는 한국학의 역사에서 『트랜스액션』의 발행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sup>7)</sup> RASKB 회원들이 ① 한국과 중국의 1차 자료를 사용했으며, ② 한국 문화를 내부인의 관점(inside or native view)으로 접근했고, ③ 이들이 대부분 선교사였음에도 유불선의 한국 종교에 기독교적 편견이나 판단 없이 접근했다는 점을 들며 이들을 한국학의 개척자로 상정하기도 했다.<sup>8)</sup> 그러나 류영익의 결론은 여러 저자의 다양한 관점과 서술 방식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트랜스액션』을 분석한 것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진이 2014년에 수행한 “한국학 연구의 파이오니어들의 눈에 비친 근대 한국: 개항기 한반도 주재 외국인들의 조선(한국)읽기를 중심으로”가 처음이다. 총 7명의 전문 연구원이 1900-1925년에 발행된 초기

5) 위의 논문, 25-39쪽.

6) Young Ick Lew, “Contribution by Western Scholars to Modern Historiography in Korea, with Emphasis on the RAS-KB1,”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80(2005), pp. 3-18.

7) 위의 논문, 10쪽.

8) 위의 논문, 11-12쪽.

『트랜스액션』을 각자 전공 분야—사회·경제·역사·지리·심리·과학·종교·예술·어문—로 나누어 분석했다. 아직 출판을 앞두고 있는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우리는 구한말 한국을 이해했던 외국인들의 시선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는 동시에 이들에 대한 총평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이 같은 시도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임의적이기는 하나 『트랜스액션』이 처음 발행되던 1900년부터 1924년까지의 기간을 ‘초기’로 설정하여 집중하고자 하였다. 해당 시기에는 한일병합(1910), 3·1운동(1919) 같은 사회적 격변이 있었고, 『트랜스액션』 발행이 중단되었다가 1911년에 재개되는 굴곡도 있었으며, 조선이라는 나라가 한반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려지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II장에서는 『트랜스액션』의 간행 실태와 성격을 소개했다. 그리고 III장에서는 초기(1900-1924)에 발행된 『트랜스액션』 저자의 참고자료와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을 분석했다. 여기에 현대 학자들이 초기 『트랜스액션』을 해석할 때 참고할 만한 사항을 덧붙여 향후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 II. 『트랜스액션』 소개

『트랜스액션』은 RASKB에서 1900년부터 현재까지 발행되고 있는 한국학 학술지다. RASKB는 20세기 초 한국에 거주하던 미국 선교사들—제임스 게일, 조지 허버 존스, 호머 힐버트—가 주축이 되어 1900년 6월 16일에 설립되었다. 이들은 이전부터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지방에서 거주하거나 여행하며 한국에 대한 정보를 축적했다. 이를 토대로 1892년부터 월간지 『코리안 리포지토리』를 발행하였으나, 보다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RASKB를 설립하고 『트랜스액션』을 발행하기에 이르렀다.<sup>9)</sup> 창립 시기 임원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회장은 존 해링턴 거빈스(John Harrington Gubbins, 1852-1929)였으며 부회장은 감리교 선교사 조지 허버 존스(George Herber

---

9) Brother Anthony, *Discovering Korea at the Start of the Twentieth Century* (Seo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Press, 2011), p. 8.

Jones, 1867-1919), 서기는 제임스 게일(James Scarth Gale, 1863-1937)과 호머 헐버트(Homer Bezaleel Hulbert, 1863-1949) 두 사람이 맡았다. RASKB 첫 총회에 참석한 인원은 17명이었고, 이들의 국적은 영국, 미국, 독일 3국으로 대표되었다. 대부분이 개신교 선교사들이었고, 외교관도 일부 있었다. 이들이 밝힌 학회의 설립 취지는 “한국과 이웃 나라의 예술, 역사, 문학, 풍습을 조사하기 위함”이었다.<sup>10)</sup>

## 1. 『트랜스액션』의 간행 실태

『트랜스액션』의 간행은 RASKB가 설립된 1900년부터 시작되어 러일전쟁과 한일병합 전후(1904-1910), 일제강점기 끝 무렵의 태평양전쟁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휴간기를 제외하고는 2017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sup>11)</sup> 『트랜스액션』의 초판은 서울에서만 판매된 것이 아니라 요코하마,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런던, 파리, 베를린과 뉴욕에 이르는 다양한 지역으로 배포되었다.<sup>12)</sup> 구성 내용으로는 투고자들의 논문뿐 아니라 RASKB 한국지부의 첫 보임과 총회에 대한 요약보고 및 회원 명단도 실려 있었다. 이 잡지의 인쇄는 당시 상황에서 가능한 최상의 품질을 얻기 위해,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학술지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일본에서 진행되었다.<sup>13)</sup> 그 뒤에는 전쟁 등의 이유로 홍콩에서, 그리고 현재는 모두 한국에서 인쇄되고 있다.

간행 주기는 대부분 한 해 한 번이지만 초기(1902, 1912-1913, 1915)에는 투고가 많아 1, 2호로 나누어 내기도 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상황 때문에 휴간기가 있었다. 1904년부터 1911년까지는 러일전쟁과 한일병합이라는 정치적 격변으로 인해, 그 여파로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RASKB 회원들이 모임을 가지기 어려웠고, 따라서 정기 간행물도 없었다. 태평양전쟁 시기인 1941-1947년과 1952-1956년의 한국전쟁 이후 수습기간에도 휴간했다. 그러나 이후 1960년대부터는 거의 한 해에 한 권씩 꾸준히 발행되고 있다.

10) Lak-Geoon George Paik, 앞의 논문(1972), 26쪽.

11) [www.raskb.com](http://www.raskb.com) > Transactions > Full texts by Volume에서 모든 논문을 열람할 수 있다.

12) Brother Anthony, 앞의 책(2011), 9쪽.

13) Lak-Geoon George Paik, 앞의 논문(1972), 33쪽.

현재 『트랜스액션』은 대표와 편집자, 심사위원단이 모두 분리되어 있어 학술지로서의 성격과 틀이 완전히 갖추어졌지만,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다. 모임의 성격은 소규모 동호회 격이었으며, 여기서 발제자가 자신이 맡은 주제의 논문을 발표한 뒤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후 출판을 위해 수정된 논문은 임원단에게 넘겨져 『트랜스액션』으로 발행되었다.<sup>14)</sup>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1920년대에도 임원단이 편집인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 2. 『트랜스액션』의 성격

RASKB 회원들은 관심분야가 다양했고, 학자로서의 수준도 아마추어부터 전문가까지 다양했다. 몇몇은 뛰어난 통찰력과 해석을 보이는 수준 높은 연구자였고, 다른 이들은 아마추어로서 주어진 주제를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논문을 썼다. 눈에 띄는 점은 초창기 RASKB 학회에서 활동하거나 논문을 투고했던 한국인이 손에 꼽힌다는 점이다. RASKB 창립 70주년이 되던 해에 백낙준이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당시까지 투고자 73명 중 49명은 서양인, 21명은 한국인과 일본인이었다.<sup>15)</sup> 현재까지의 통계를 조사하여 반영하면 그 숫자는 더 증가할 것이다.

『트랜스액션』의 일부는 현장 조사(fieldwork)였으나 대부분은 1차 자료를 연구 분석하여 도출한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한문을 해석할 수 있는 연구자는 소수였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거주하며 그들에게 낮은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학술지로 출판할 만한 논문이 항상 부족했고, 회장이 투고를 격려하며 회원들이 연구할 만한 주제를 선정하여 맡기기도 했다.<sup>16)</sup> 때로는 한국에 대한 거짓 정보와 편견을 반박할 수 있는 논문을 쓰도록 하기도 했다. 1930년의 총회 기록을 보면, “한국에 관한 거짓 정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런 주장을 정정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에서 논의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sup>17)</sup>

14) 위의 논문, 2쪽.

15) 위의 논문, 33쪽.

16) 위의 논문, 34쪽.

17) 위의 논문, 34쪽.

탈식민주의 시대를 맞이한 21세기에, 개항기 한국을 표상(represent)했던 서구인의 저작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는 제국주의와 문화의 관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19세기 후반, 제국주의의 절정에 달했던 시기 영국 문학소설을 분석한 바 있다.<sup>18)</sup> 여기서 그는 당시 간혹 신중하게 기록된 것들이 지금까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점을 분명히 의식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에서야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과거의 억압을 회복시키거나 복수하려는 동기가 아니라고 밝힌다. 그는 제국주의가 ‘공통의 역사적 체험’임을 인식하며 19세기 후반, 제국주의의 절정에 달했던 영국 문학소설의 텍스트에서 그러한 공통의 경험과 상호의존적 갈등의 역사를 읽어내려 시도했다.<sup>19)</sup> 한국에서도 이러한 시도를 통해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는 과정이 요청된다. 아래 III장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1900-1924년에 발행된 초기 『트랜스액션』의 사료와 관점을 분석하였다.

### III. 초기 『트랜스액션』 분석

#### 1. 논문 주제와 참고자료<sup>20)</sup>

투고자가 다양했던 만큼 『트랜스액션』이 다루는 주제도 미술, 역사, 문학, 지리, 과학, 의학, 풍습, 언어, 종교, 음악 등으로 다채롭다. 이들은 논문을 쓰기 위해 한국이나 중국·일본의 자료와 영문 자료를 참고했다. 저자 대부분이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직접 관찰하고 경험한 기록을 소개했다. 그러나 초기 『트랜스액션』은 현대 학술논문처럼 자료의 출처를 엄격하게 기록하지 않았다. 저자 자신이 이런저런 자료를 참고했다고 본문에서 밝힌 경우가 종종 있지만, 아예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떤 문헌을 근거로 한국을 인식하고 기술했는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본 논문에서 분석한 초기(1900-

18) 에드워드 사이드, 박홍규 역, 『문화와 제국주의』(문예출판사, 2005), 37쪽.

19) 위의 책, 157쪽.

20) 본 논문 마지막에 첨부된 표1 참조.

1924) 『트랜스액션』의 저자와 주제, 참고자료를 해제해서 별도의 표로 작성하여 본 논문의 마지막에 첨부했다. 표에 기록된 서명과 음역, 번역은 저자들이 본문에서 표기한 그대로 옮겨 적었다. 여기에 필자가 덧붙인 번역과 설명은 대괄호 ( )로 표기했다. 이러한 사료 분석을 통해 저자들이 선택한 자료가 주제마다 적절했는지, 또한 이들의 자료 선택이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작업은 현재 필자의 능력과 관점을 벗어나며, 향후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이들이 어떤 자료를 참고했는지 밝히는 것만큼, 참고자료가 한문이거나 한글인 경우에 저자가 이를 적절하게 이해했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초기 RASKB 회원 중에는 한문 자료를 현지인의 도움 없이도 읽고 이해할 수 있었던 이들(트롤럽(Mark Napier Trollope), 게일, 레이(Arthur Hyde Lay))이 있었다. 그러나 한문에 능하다고 하여 동양의 고전 문헌과 사료를 완벽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다. 한 예로, 게일이 1912년에 한국인의 사주와 궁합에 대해 쓴 논문 “Selection and Divorce”에서 소학 2장 ‘남편과 아내의 관계(明夫婦之別)’를 번역하여 소개했는데, 한문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 아래에 소학의 원문과 게일의 번역을 제시한다.<sup>21)</sup>

女有五不取, 逆家子不取, 亂家子不取, 世有刑人不取, 世有惡疾不取, 喪父長子不取.  
 There are five things that will disqualify a woman for marriage:  
 First: if she is the daughter of a rebel or outlaw.  
 Second: if she belongs to a family that has broken nature's laws.  
 Third: if her ancestry is branded with marks of imprisonment.  
 Fourth: if her family has been diseased for generations.  
 Fifth: if she is a fatherless child and untaught.

여기서 게일은 女有五不取를 “여자가 혼인할 수 없는 다섯 가지 조건”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이것은 오역이다. 소학의 원문에서는 여자가 아닌 남자가 혼인에 적합하지 않은 원인 다섯 가지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sup>22)</sup>

21) James S. Gale, “Selection and Divorc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IV(1912-1913), No. 3, p. 22.

22) 주희 저, 윤호창 옮김, 『소학』(홍익출판사, 2011), 74쪽. “여자는 남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다섯 부류가 있다. 반역한 집안의 자식, 음란한 집안의 자식, 대대로 형벌을 받은 집안의 자식, 대대로 몸을 병에 걸린 집안의 자식, 아버지가 없는 집안의 맏아들은

그러므로 게일의 번역은 “There are five things that will disqualify a man for marriage”, “if he ……”로 수정되어야 한다. 한편 이 같은 오역을 통해 게일이 한국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한문 텍스트를 읽고 해석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 2. 한국을 바라보는 저자의 관점

『트랜스액션』의 저자들은 어떤 관점으로 한국을 읽어냈을까? 19세기 서구인들이 제국주의와 오리엔탈리즘으로 동양을 타자화시키고 소외시켰던 것처럼 『트랜스액션』도 오리엔탈리스트 담론의 일부였는가? 여기에 『트랜스액션』은 어떤 답을 할 수 있을지, 초기에 발행된 논문들을 1차 자료로 삼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서구가 아닌 일본의 식민 지배를 겪었기 때문에 오리엔탈리즘의 동-서 대립구조를 단순히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한국을 서구의 관점으로 표상하며 왜곡된 이미지를 생산한 것은 일본이었다. 동양에서 ‘문명의 우두머리’ 역할을 맡은 일본은 ‘미개’의 ‘고루한 인접 국가’인 중국이나 한국과의 경계를 고정된 것으로 만들고, 결국 스스로 대표할 수 없는 아시아를 대신해서 그들을 대표해야 한다는 도착된 자부심(식민지 지배의 ‘문화적 사명’)을 강화했다.<sup>23)</sup> 따라서 한국에서는 반서구적 반제국주의 대신 오히려 서구를 의지하여 국가적 정체성을 세우려는 움직임마저 일었다. 그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서구인들의 입장은 ‘오리엔탈리스트’로 쉽게 규정되기 어렵다. 국내의 연구자들은 이렇듯 특수한 한국의 역사적 정황을 인식하는 가운데, 개항기 서구인들의 대한(對韓) 인식을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있다.<sup>24)</sup>

예를 들어, 한국 교회사학자 류대영은 한국에서 활동했던 미국 선교사들이 남긴 정기간행물과 보고서, 서신에서 기독교중심주의 태도를 발견하지만, 이를 오리엔탈리즘으로 평가하는 것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개념

---

선택하지 않는다.”

23) 강상중,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이산, 1999), 89쪽.

24) 류대영, 「국내 발간 영문 잡지를 통해서 본 서구인의 한국 종교 이해, 1890-1940」, 『한국 기독교와 역사』 제26권(2007), 141-175쪽; 이상훈, 「구한말 미 개신교 선교사들의 대한 인식」, 『근대성의 형성과 종교지형의 변동 I』(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79-103쪽.

들을 지나치게 단순한 가치체계로 인식한 결과로 본다.<sup>25)</sup> 이런 방식으로는 서구의 관점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나 당시 한국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류대영은 이들의 글을 폭넓게 읽어보면 한국을 보는 관점이 의외로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주지하고 있다.<sup>26)</sup> 이상훈도 구한말 선교사들이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했던 비서구=비문명=야만이라는 공식보다 훨씬 복잡한 문화적 논리를 갖고 있었다고 분석했다.<sup>27)</sup> 구한말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은 이성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세속주의적 근대문명이 자신들의 청교도적 패러다임, 근본주의적·종말적 신앙관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반근대주의의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서구의 문명사회를 벗어나 대한제국에 들어왔을 때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과 더불어 한인들의 비문명적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 계몽하는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입장이 되었다. 따라서 신앙과 문명에 대해 매우 모호하면서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상훈은 이처럼 문명과 한국에 대해 선교사들이 보였던 모호한 태도는 당시 아시아 지역에 진출하여 서구문명의 잣대로 비서구 사회를 재단하던 군인 또는 상인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이처럼 개항기 한국을 바라보던 서구인들의 관점이 단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트랜스액션』의 1900년 초판부터 드러난다. 한국의 문화 정체성을 두고 중국의 영향력을 주장한 게일과 한국의 독특성을 강조한 헐버트가 첫 호에서부터 논쟁을 벌였던 것이다. 게일은 중국에 대한 한국의 종속성을 강조했다. 역사와 언어, 문화, 음악, 의복 등 모든 면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나 헐버트는 중국과 한국을 동일시하는 견해에 반대한다. 한국이 중국의 영향을 받기는 했으나 ‘자기화’하여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나갔다는 점에서, 헐버트는 한국을 영국과 동일한 주체적 존재로 인식한다. 이 후로 RASKB 회원들은 다양한 자료를 통해 각자 나름대로 한국을 이해했고, 『트랜스액션』이라는 장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한국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형성해나갔다. 이들 관점의 다양성을 이해하려면 분석이 필요하다.

25) 류대영, 위의 논문, 146-147쪽.

26) 위의 논문, 143쪽.

27) 이상훈, 앞의 논문(2005), 102-103쪽.

본 논문에서는 초기(1900-1924) 『트랜스액션』 저자들의 관점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관점을 세 가지—문명론자, 관찰자, 내부자—로 나누었다. 먼저 ‘문명론자’ 관점은 서구 문명의 진보와 과학의 우월성을 노골적으로 표현한다. 문명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한국의 모습을 비판한다. 객관적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서술 속에서 한국을 타자로 소외시키고 거리 두기를 시도한다. ‘관찰자’ 관점은 가치중립적 태도로 한국의 사회문화현상을 관찰하며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그러나 오리엔탈리즘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 학술 담론의 체계로서 식민지 지배와 제도에 깊이 얽혀 권위를 지속해왔다.<sup>28)</sup> 인도에서부터 스리랑카, 홍콩,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에 이어 한국에 왕립학회가 설립된 이래로, 동양은 서양에 의해 표상되었으며, 그 유산은 지역학과 비교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문명론자와 관찰자 관점은 오리엔탈리스트로 규명되기 쉽다. 문명과 진보를 기치로 제국주의 정책을 옹호하던 이들의 관점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자’ 관점은 서구 문명을 기준으로 한국인과 그들의 문화를 표상하거나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의 두 관점과 다르다. 한국의 문화를 한국의 독특한 환경과 역사적·사회적 상황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로, 현대의 문화상대주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인의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아래에서는 초기 『트랜스액션』에서 각 관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사례를 제시했다. 분석 결과 많은 저자들에게 이러한 관점이 종종 혼재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 1) 문명론자 관점

문명론자 관점은 한국의 문화를 서구식으로 읽어내며, ‘우리’ 우월한 서양과 ‘그들’ 뒤떨어진 한국 사이에 경계를 긋는다. 문화 간 차이를 우열 관계로 인식하며 보는 쪽과 보이는 쪽의 이항대립 관계를 설정한다. 따라서 서구 문명의 진보와 과학적 우월성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며, 문명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한국의 모습을 비판한다. 자연히 일본의 식민정책을 ‘발전’으로 인식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일본이 한국에서 벌이는 사업이 한국의 개발·문명화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28) 강상중, 앞의 책(1999), 81쪽.

보인다. 따라서 『트랜스액션』 논문에서도 간행 초기와 비교할 때 1910년의 국권 피탈 이후로 문명론자 관점의 논조가 강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1910년 이전에 쓰인 논문 8편은 주로 역사와 종교에 집중된 반면, 1910년 이후에 쓰인 10편은 지리·풍습·과학·경제·기행문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대부분의 저자가 문명론자 관점을 보이지만, 특히 과학·경제 주제를 다룬 논문에서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감리교 선교사였던 콜리어(Charles T. Collyer)는 송도 지역의 홍삼 제조 과정을 관찰하여 “The Culture and Preparation of Ginseng in Korea”라는 글을 썼다. 홍삼의 효능은 최음제로서 가치가 있다며, 홍삼의 약효에 대해 미심쩍은 눈초리를 보낸다. “홍삼은 서양 약국에서는 팔리지 않을 것이다. (서양의) 다른 약을 쓰면 더 효과가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서양인) 눈에는 의심쩍어 보일 수 있지만 홍삼은 한국과 중국 남성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sup>29)</sup>면서, 홍삼의 효능을 최음제 및 마약 부작용 완화제에 그칠 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테일러(William W. Taylor)는 선교사가 아닌 운산 광산에 파견된 기술자로, 뉴욕 헤럴드 특파원으로 글을 쓰기도 했다. “Korean Roads Past and Present”에서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일본 총독부가 도로공사를 시행하여 1920년대에 자동차 여행도 가능해지자, 예전에 경험했던 한국의 옛 길과 교통수단을 당시와 비교했다. 처음 경험했던 한국 도로는 일부러 내거나 포장하지 않았으므로 엄밀히 말해 ‘도로가 아니었다고 평한다.<sup>30)</sup> 그가 보기에 한국은 도로가 없어 내부 교통이나 물자의 순환이 막혀 있었고, 몸의 편안함과 건강을 도모하는 기술이 한참 뒤떨어져 있었다. 그러므로 일본 총독 테라우치 마사다케(寺内正毅)가 도로건설을 계획하고 한국인들에게 부역을 시켰을 때, 새 도로가 한국인들의 토지를

---

29) “The virtue of Sam as a drug lies in its aphrodisiacal property. I believe that it does not find a place in Western pharmacy because all legitimate medical ends can be better attained by the use of other drugs. We may look askance at it but it plays a very important part in the life of both the Korean and the Chinese gentlemen.”

C. T. Collyer, “the Culture and Preparation of Ginseng in Korea,”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III(1903), p. 29.

30) W. W. Taylor, “Korean Roads Past and Present,”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XV(1924), p. 37.

가로질러 건설되고 부역 때문에 시달렸지만 토지의 가치도 상승하므로 충분히 보상이 되고도 남는다고 여겼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는 개발주의와 문명론자의 관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트롤럽도 불교의 기원과 한국으로 전래되는 과정, 교리를 설명하는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Buddhism in Korea”에서 문명론자 관점을 보인다. 그의 글에서는 동서양의 거리 두기와 서양의 우월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양이 동양에 영향력을 끼친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남북으로 나뉘어 중국과 한국으로 전래되기까지 과정을 추적하면서, 북부로 전달된 대승불교는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페르시아·그리스 문화와 융합되었으므로 서쪽 문화와의 융합물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그가 불교 안의 서양을 미화시키는 근거는 부처의 고향을 서역국(西域國)으로 칭하는 점, 불도들의 이상향이 서천(西天)이라는 점이다.<sup>31)</sup> 이 외에도 트롤럽은 동서양 사고방식의 차이를 논하면서 서양의 논리적 사고방식을 절대적 기준으로 상정하고 있다.

동양인의 사고방식은 우리 [서양인] 대부분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를 따라 훈련 받은 것처럼 단련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보기에 당황스러울 만큼 일관적이지 않은 사고방식과 흐릿하고 명확하지 않은 분석으로 그저 떠들 뿐이다. 동양인은 근거가 빈약하거나, 아예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도 기꺼이 ‘사실’로 받아들인다.<sup>32)</sup>

이 같은 서양의 합리성과 동양의 비합리성의 우열을 상정하는 관점은 기독교와 불교를 비교하는 방식에서도 이어진다. 기독교에 비해 불교에서는 부처의 일생을 일관성 있게 소개하는 기록이 부재하며, 팔정문(八正門, the Eightfold Noble Path), 육도(六度, the Six Paramita), 십이인연(十二因緣, the Twelve Nidana) 등의 교리는 합리적으로 범주화될 수 없는 것들을 하나의 제목 아래 뒤섞어 놓았을 뿐이라고 평했다.<sup>33)</sup>

31) Brother Anthony, 앞의 책(2011), p. 349.

32) “But the oriental mind, not having been trained as our minds mostly have been, along the lines of inexorable Aristotelian logic, simply revels in what too often appears to us a bewildering inconsistency, coupled with a habit of hazy inaccurated analysis, and a willingness to accept as “facts” statements supported by the slenderest evidence or by none at all.”

Mark N. Trollope,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Buddhism in Korea,”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VIII(1917), p. 15.

## 2) 관찰자 관점

관찰자 관점으로 쓰인 논문에서는 저자의 주관적 평가나 감정을 거의 찾기 힘들다. 가치중립적 태도로 한국의 사회문화현상을 관찰하며 정보만 객관적으로 전달할 뿐이다. 한국의 혼인풍습에 대해 논문을 썼던 레이나 중의학·한의학을 연구한 바우먼(Newton H. Bowman)이 좋은 사례다.

레이는 중국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교육받았으며, 일본에서 통역가로 일한 후 영국 영사가 되어 한국·하와이·일본에 부임한 경력이 있다.<sup>34)</sup> 이러한 다문화 배경 덕분인지, 그의 글에서는 서구 문명에 대해 우월성을 과시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서양과 동양을 비교하며 거리를 두는 서술도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의 혼인 풍습에 대해 한국인과 대화를 통해 얻은 이야기와 자신이 직접 관찰한 혼인식을 진행 순서대로 묘사하고, 『시행간례휘찬(時行簡禮彙纂)』이나 『사례편람(四禮便覽)』, 『제국신문』을 참고하여 얻은 정보-역사, 혼인과 이혼에 관한 법, 혼인 풍습의 지역별 차이, 혼인한 여자의 처우-만 기술할 뿐이다.<sup>35)</sup>

바우먼은 감리교 선교사이자 세브란스 의학전문대학의 의사였다. 그는 한국에서 사용하던 의학서적과 탕약 제조·침술에 관해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The History of Korean Medicine”을 작성했다. 중국에서 수입된 의서 목록과 그 내용을 요약했을 뿐 아니라 한국으로 전래된 역사를 개괄했다.<sup>36)</sup> 또한 한국에서 만들어진 의서를 소개하고, 주요한 약 재료의 명칭을 한글/한문/영어로 번역한 표를 제시하였다. 침술과 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한의학의 해부도도 덧붙였다. 바우먼의 논문에서는 마지막 문장을 제외하면 저자의 견해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트랜잭션』의 본래 취지대로 한국의 문화사회현상을 객관적으로 관찰·서술하고자 한 이들의 태도가 완벽히 가치중립적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들은 19세기 제국주의시대의 서양에서 자라나고 교육받은 서양인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으며 따라서 이 글에서 지적하는

33) Brother Anthony, 앞의 책(2011), 366쪽.

34) 위의 책, 20쪽.

35) Arthur Hyde Lay, “Marriage Customs of Korea,”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IV(1912-1913), pp. 1-15.

36) N. H. Bowman, “the History of Korean Medicin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VI(1915), pp. 1-34.

것처럼 관찰자 관점으로 쓴 글에서도 문명론자의 자문화 중심적 태도가 간간히 드러난다.

### 3) 내부자 관점

본 논문에서 정의하는 내부자 관점이란, 서구인이 한국인과 한국의 문화를 표상하면서 그 대상을 종속시키거나 소외시키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한국의 문화를 한국의 독특한 환경과 역사적·사회적 상황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로, 현대의 문화상대주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의 제국주의와 오리엔탈리즘 담론을 생각해보면 당시 서구인이 한국에 대해 기술하면서 이처럼 문화상대주의적인 내부자 관점을 보이기도 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트랜스액션』의 초기 저자 중 내부자 관점을 대표하는 이는 역시 헐버트다. 그는 1900년 『트랜스액션』의 창간호에서 게일이 쓴 “The Chinese Influence upon Korea”를 반박하며 “Korean Survival”을 썼다. 게일은 첫머리에서부터 한반도 기자 유래설을 서술하면서 한국의 좋은 것은 모두 중국에서 전수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헐버트는 이러한 게일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한국이 초기에는 인종·언어·종교·과학·예술·문학·의복 등 여러 면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았으나 점차 자신만의 것을 독립적으로 발전시켰음을 논증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독립성을 변호하기 위해 중국-한국 관계를 유럽 대륙-영국 관계와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 헐버트는 영국과 한국을 대응시키고 있다.

외국에서 사상을 빌려왔다는 이유로 (사상의) 차용자와 소유주를 동일하다고 여긴다면, 한국이 중국에 종속되는 만큼 영국도 유럽 대륙에 종속된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영국이 그렇게 종속되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영국은 외국 사상을 다 흡수하여 독특하고 개별적인 국가가 되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sup>37)</sup>

---

37) “..... I beg to submit the proposition that if the mere borrowing of foreign ideas brings the borrower into complete conformity to the lender we have a right to say that England is as subservient to Continental ideas as Korea is to Chinese. But no one would dream of saying that England has shown any such subserviency. With all her adaptation of foreign ideas England is a distinct and separate national unit. The same is true of Korea.”

Homer B. Hulbert, “Korean Survivals and Discussion,”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I(1900), p. 38.

이처럼 헐버트는 내부자 관점으로 한국의 종속성을 부정하며 주체성을 변호했다. 그의 대한(對韓) 인식은 독립 이후 한국인이 형성해간 민족주의적 정체성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sup>38)</sup>

내부자 관점의 또 다른 예로 개일을 들 수 있다. 개일은 금강산 기행문에서 침낭에 땀비며 식량이며 한가득 거창하게 짐을 꾸려 나귀 등에 지우고, 불편한 옷차림으로 떠나는 자신의 일행에 비해 단출한 차림으로 가볍게 길에 오르는 한국인의 모습을 대조한다. 그런데 개일의 글에서는 문명(서구인)-비문명(동양인)의 우열이 역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금강산으로 한 달간 여행을 떠나기 위해 엄청난 짐을 꾸려야 했다. 침낭, 통조림 상자 여러 개, 옷 꾸러미 여러 개, 냄비, 팬과 주전자 등등. 가벼운 차림으로 여행하는 동양인에 비교하자면 외국인들은 불쌍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동양인은 헐렁한 바지와 얇은 겹옷에 짚신을 신고 가벼운 발걸음을 내딛는다. (셔츠) 칼라와 커프스에 매이지 않고, 술 많은 검은 머리 하나로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는 우리 세익스피어 일행을 비웃는다. 모자와 머리띠를 바람에 날리며 겁 없이 나서는 그 모습은 얼마나 자연에 가까운가.<sup>39)</sup>

여기 개일의 어조에서는 오히려 서구 문명을 거추장스러운 짐으로 여기는 분위기마저 느껴진다. 이 같은 개일의 관점은 앞서 문명론자의 관점으로 한국 도로의 비효율성에 대해 불평했던 테일러의 글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8) Brother Anthony, 앞의 책(2011), 23쪽.

39) "We were off for a month to the Diamond Mountains and what a heap of baggage we seemed to require: sleeping-rolls, boxes of canned goods, hamper-baskets of clothes, pots, pans and kettles. Foreigners are surely to be pitied compared with the light travelling man of the east, who picks himself up with a wisp of trouser, transparent jacket and a pair of straw shoes and hies him off on light and easy toe. He is not cangued with collar or cuffs, but goes simple as nature made him. With all the hair on his head, thick and black, to protect him from the sun, he laughs to scorn William Shakespeare and company as he flings hat and turban to the winds and faces the day undaunted. How close to nature he is."  
James S. Gale, "the Diamond Mountains,"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XIII(1922), pp. 11-12.

### 3. 해석상 유의사항

100여 년 전에 쓰인 『트랜스액션』의 초기 논문을 현대 한국 학자가 읽거나 번역하는 일은 수월하지 않다. 언어 장벽도 문제이지만, 이들의 글에는 앞에서 분석한 여러 관점이 혼재되어 있다. 게다가 한글을 영문으로 음역하는 방식이 일관되지 않아 같은 대상을 저자마다 다르게 표기하고 있다. 또한 성경의 용어나 비유를 사용하는 개신교인 특유의 표현법으로 자신의 견해와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기독교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숨겨진 의도를 읽어내기 힘들다. 향후 『트랜스액션』을 연구할 학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그러한 사례를 아래에 제시하였다.

#### 1) 저자들의 다중 관점

초기 『트랜스액션』 저자 집단의 저술을 분석하면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한국을 관찰하던 이들의 관점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저자가 동시에 여러 관점을 보이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관찰자 관점으로 서술하다가 문명론자 관점으로 결론을 내린다. 한 예로, 중의학과 한의학에 관해 내내 객관적 관찰을 보이던 바우먼은 자신의 논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서 문명론자의 관점을 드러낸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은 20세기의 지적 배경을 가진 우리에게 그보다 뛰어난 지적 활력을 주지 못하며, 그럴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동양 의학의 실제와 한국에서 (전개된) 그 역사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sup>40)</sup>

마찬가지로, 루퍼스(W. Carl Rufus)는 ‘천상열차분야지도각석’에 대해 쓴 논문에서 관찰자 관점과 문명론자 관점을 동시에 보인다. 먼저 동양의 천문학을 상세히 관찰하여 얻은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했다.<sup>41)</sup> 당시 창덕궁의 해시계, 물시계, 혼천의를 직접 관찰하여 얻은 경험주의적 지식과 동서양의 자료를 폭넓게 인용하며 동양의 천문학을 서양의 것과

40) “The knowledge gained by this study will not, of necessity, give to us in this 20<sup>th</sup> century of intellectual environment greater energy of thought, but it will give u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life-story of Oriental medicine and its history in Korea.”

N. H. Bowman, 앞의 논문I(1915), 34쪽.

41) W. Carl Rufus, “the Celestial Planisphere of King Yi Tai-Jo [Yi T’aejol,”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IV(1912-1913), pp. 23-72.

비교했다. 중국·한국·일본의 별자리 관련 신화를 그리스·로마 신화와 비교하고, 줄리안력과 한족의 달력을 비교하며, 달과 태양을 음-양으로 이해하는 동양의 사상과 이집트의 태양신 숭배사상, 인도의 달 관련 신화를 비교하기도 했다.<sup>42)</sup> 이로 보아 그는 중국과 한국의 천문학을 이집트-유프라테스-인도 계열의 Oriental로 규정하는 한편, 영미권의 천문학은 그리스·로마 계열의 Occidental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양을 서양과 비교하면서, 서양보다 낙후한 것으로 판단하는 문명론자의 관점을 보인다. 루퍼스가 전자를 표현할 때 선택한 단어는 ‘old, arbitrary’였다. 더 나아가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에 소개했던 서양 과학이 동양에 미친 영향을 거듭 강조하면서, 우월한 서양 문명이 무지한 동양을 계몽했음을 주시시키고 있다.

앞에서 내부자 관점의 사례로 꼽았던 게일도 관찰자와 문명론자 관점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의 혼인에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주’와 이에 따라 남녀 간 궁합을 설명하는 “Selection and Divorce”를 보면, 게일이 동양 철학을 상세하게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음양오행의 구성과 상생·상극 관계를 설명하고, 12지지와 천간을 소개하며, 그에 따라 날짜를 읽는 법, 사주를 해석하는 방법도 설명하고 있다.<sup>43)</sup> 그런데 이 같은 객관적 관찰 이후 간단히 주관적 평가를 덧붙이는 부분에서 문명론자 관점을 읽을 수 있다. 12지지 열 두 동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는 “아이들 장난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고대 동양에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sup>44)</sup>며 서구의 독자들이 보일 반응을 예상하기도 했다. 자신이 가상으로 설정한 남녀의 사주를 각각 풀이하면서 사주 보는 법을 설명한 후에는 다음 한 문장으로 자신의 견해를 함축한다. “This will illustrate the tedious process by which marriage elective affinities are arrived at.”<sup>45)</sup>

한 저자에게 문명론자, 관찰자, 내부자 세 가지 관점이 모두 혼재되어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대표적인 예로 존스를 들 수 있다. “The Spirit

42) 위의 논문, 52쪽.

43) James S. Gale, 앞의 논문(1912-1913), 17-22쪽.

44) “It may seem like mere child’s play, but the old world of the East did not at all view it so, when the wise and learned gave their best attention to finding out how the future of the young married couple would stand as regards these animals.”  
위의 논문, 19쪽.

45) 위의 논문, 22쪽.

Worship of the Koreans”에서 존스는 한국의 민간신앙을 상당히 관용적인 태도로 대하며 순수한 호기심을 동기로 탐구하는 관찰자 관점을 보였다. 주로 직접 관찰한 바와 한국인에게 전해 들은 정보를 수집하여 소개했다. 가치판단을 유보하며 객관적으로 한국 종교를 서술하는 존스의 글을 보면 그가 선교사라는 사실이 의심될 정도다. 그는 기독교를 절대 기준으로 삼아 현지 종교를 배타적으로 판단하는 태도를 최대한 유보했으며 한국인만의 독특한 종교성을 인정했다. 서울대 종교학연구소의 김종서 교수도 존스가 당시 한국 종교의 중층다원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점이 특히 놀랍다며, 그가 유교와 불교를 단순히 사상적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학적 차원을 늘 존중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sup>46)</sup>

한편, 같은 논문에서 존스의 내부자 관점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의 유물이 잘 보존되지 않고 함부로 방치된 상태를 안타까워하며 “속히 한국 학자들(native scholars)이 유물에 담긴 역사와 이념을 설명해줄 날이 오기를 바란다”<sup>47)</sup>고 한 부분이다. 그가 한국의 역사와 유물이 지니는 독특한 가치를 인정하고 한국 학자의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한국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내부자 관점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그러다가도 용에 대한 신앙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자문화 중심주의적 태도로 문명론자 관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용에 대한 미신은 모든 인류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우월한 문명국 출신의 우리 서구인은 동양인만큼 용에 대해 친숙하다.” 그러나 “우리 백인은 더 이상 용이라는 괴물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지 않지만, 한때 그 같은 신화는 우리에게도 보편적인 신앙의 대상이었다”<sup>48)</sup>라며 진화론적 종교관을 보인다. 여기서 존스는 종교 진화의 상위 단계에 있는 서양과 이에 비해 낙후한 동양과 거리를 두며 타자화하는 문명론자의 관점을 보였다.

46) 김종서, 『서양인의 한국 종교 연구』(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6), 25쪽.

47) “Let us hope that one of these days native scholars will take this matter up and that these memorials will once more become vocal of the events, ideas and institutions for which they stand.”

George Heber Jones, “Korea’s Colossal Image of Buddha,”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I(1900), p. 58.

48) “We who come from the west with our superior civilization are almost as familiar with this monster as the people of the east, and though we no longer credit it, yet there was a time when it held a place in the popular beliefs of the white man.” George Heber Jones, “The Spirit Worship of the Koreans,”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II(1902), p. 53.

## 2) 다양한 로마자 표기법

현재 한국어를 음역하여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국외에서는 주로 매쿤과 라이샤워(G. M. McCune and E. O. Reischauer, 줄여서 M-R)가 개발한 방법을 사용하고, 국내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개정한 표기법(Revised Romanization of Korean, 줄여서 RRK)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M-R 표기법이 처음으로 게재된 학술지가 바로 『트랜스액션』(1939)<sup>49)</sup>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1939년 이전에 쓰인 초기 『트랜스액션』의 여러 논문에서는 한글을 로마자로 음역하는 방식이 가지각색이었다. ‘전라도’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Chulla(계일), Chul-la[밀스(Edwin W. Mills)], Chŭlla(존스), Thilado[하멜(Hendrik Hamel)]처럼 다양하게 표기되었다. 영미권의 저자는 영어식으로, 하멜 같은 비영어권 저자는 그 나름의 모국어 발음으로 로마자를 사용했으므로 표기법에 일관성이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트랜스액션』의 초기 저자들은 인물, 지역, 책, 풍습 등의 한글 고유명사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표기했다. 그러므로 현대의 학자가 이들의 글을 읽을 때에는 같은 대상을 서로 다른 것으로 여기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3) 성경 인용구와 비유 사용

앞에서 보았듯이, RASKB의 초기 회원들은 대체로 한국의 사회현상과 문화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서술하다가 본인의 의견을 단편적으로 피력했다. 그런데 이때 자신의 감정이나 견해를 표현하는 방식은 노골적이기보다 예들러 말하거나 비유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대다수가 선교사였고,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당시 서구 사회는 지금처럼 세속화되지 않았으므로, 곳곳에서 성경에서 비롯된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거나 비유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양의 지식인이 세련된 글쓰기를 위해 사서삼경을 인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대한(對韓) 인식과 주관적 견해, 논문에서 의도하는 바를 깊이 있게

---

49) E. O. Reischauer and G. M. McCune, "The Romanization of the Korean Language Based on Its Phonetic Structur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XXIX(1939), pp. 1-55. 이들이 일제강점기 말, 민족말살정책이 정점에 이르러 한글 사용이 금지되던 시기에 한글의 로마자화 표기법을 연구하여 발표했다는 것이 의미심장하다.

이해하려면 성경에 대한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헐버트의 “Korean Survivals”에서 한국의 유교를 중국의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 “[Korean] Confucianism is a literary shibboleth”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다.

…… Which one of the Confucian precepts have the Koreans observed with even a reasonable degree of faithfulness? Not one. Their Confucianism is a literary shibboleth—a system of casuistry which is as remote from the field of practical ethics as the system of Machiavelli was remote from the field of genuine diplomacy.<sup>50)</sup>

이 십볼렛이란 단어는 현재 영어사전에서 ‘1) 특정한 계급이나 집단의 특수한 발음, 말씨, 행동, 복장 등, 2) 암호말; (정당 등의) 표어; 진부한 문구’로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그 근본 출처는 히브리어 성경<sup>51)</sup>이며, 개신교 선교사였던 헐버트가 이를 사용한 의도는 성경적 배경에서 추론해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길르앗과 에브라임이라는 동족 집단이 전쟁을 치르던 중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의 도망자를 잡아 집단으로 살해했다. 이때 도망자들이 자신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고 발뺌하자, 길르앗 군인들은 진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이들에게 shibboleth을 발음해보게 하였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사투리 때문에 Shibboleth을 ‘십볼렛’이라 발음하고 길르앗 사람들은 ‘쉽볼렛’으로 발음하였기에, 이것으로 적군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배경지식이 있다면 헐버트가 어떤 의도로 한국의 유교를 ‘literary shibboleth’이라 표현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초기 『트랜스액션』의 저자들은 위에서 든 사례처럼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고, 성경에서 나오는 일화로 비유를 들기도 했다. 바우먼은 “The History of Korean Medicine”에서 한의학자가 조선의 상황에 맞도록 『본초』를 개정했다면 중의학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because Korea was to China only a child and surely what was not bred in the bone of a Chinaman could not come out in the flesh of a Korean”<sup>52)</sup>

50) Homer B. Hulbert, 앞의 논문(1900), 25-50쪽.

51) 사사기 12장 4-6절.

52) N. H. Bowman, 앞의 논문(1915), 10쪽.

이를 직역하면, “중국은 한국을 아이로 여겼고, 당연히 중국인의 뼈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한국인의 살에서 나올 리가 없다고 여겼다” 정도가 된다. 그러나 그 정도 해석으로는 이 문장이 의도하는 바를 읽어내기 어렵다. 여기서 사용된 뼈와 살의 비유는 성경의 창세기에서 비롯된 것으로<sup>53)</sup>, 하나님이 잠든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하와)를 만든 후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고 했다는 부분이다. 바우먼은 중국인이 인식하는 중-한 관계를 (먼저 난) 아담의 뼈와 (아담에게서 난) 하와의 살로 비유했던 것이다.

이처럼 저자가 성경의 표현이나 비유를 사용하여 은근하면서도 미묘하게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는 글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저자의 견해를 제대로 읽으려면 성경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단편적·함축적으로 표현한 저자의 의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 IV.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한국에 거주했던 서구인들이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RASKB)를 설립하고, 정기적으로 발행했던 학술지 『트랜스액션』을 비판적으로 탐색했다. 연구 목적은 정치사회적 격변기를 지나던 20세기 초 한국을 서구인이 어떻게 인식했으며, 어떤 자료를 근거로 그러한 인식을 형성했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트랜스액션』은 오리엔탈리스트 담론의 일부였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초기에 발행된 논문들을 1차 자료로 삼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간행 초기(1900-1924) 논문에서 당시 서구인들이 어떤 관점으로 한국을 인식했으며 그러한 인식이 생기게 된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참고한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이들은 문명론자·관찰자·내부자의 세 가지 관점으로 한국을 바라보았으며, 많은 경우 한 저자가 여러 관점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또한 향후 이들의 글을 연구할 연구자는 이처럼 ‘저자들의 관점이 혼재되었다는 점, 당시

53) 창세기 2장 21-23절.

한국어의 로마자 음역 표기방식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 저자들의 기독교 배경으로 인해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때 성경에서 비롯된 표현·비유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연구를 통해 오늘날 미국과 서구가 가지고 있는 대한(對韓) 인식의 뿌리를 밝히고자 하였다.

아래 표의 서명과 음역 번역은 각 저자가 본문에서 표기한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일관성이 없거나 오역이 있을 수 있음. 필자가 번역이나 설명을 덧붙인 경우는 대괄호( )로 표기했음.

표1-각 논문의 서지사항

주제	저자와 논문명 (발행연도)	서지사항
역사	James S. Gale, "The Influence of China upon Korea" (1900)	<i>The Book of History</i> (Sö-chön); <i>Korean Repository</i> (February 1898); <i>O-ryun-häng-sil</i> (五倫行實); <i>Yu-hyül-lok</i> (儒賢錄, Record of Noted Men); <i>Cho-tu-rok</i> (俎豆錄); <i>A-heui-wül-lan</i> (兒戲原覽); <i>Tong-guk Tong-gam</i> (東國通鑑); <i>Chi-ga-sü</i> (地家書 Writings Pertaining to Geomancy); <i>Yang-t'äk Chip-char</i> (陽宅集撰, the Law of House Selection); <i>Sük-chün</i> (釋典, Rules for the Two Yearly Sacrifices offered to Confucius)  <i>Tong-mong-sün-seup</i> (童蒙先習); <i>Sa-ryok</i> (史略); <i>Sü-jun</i> (書傳, Confucian Canon of History); <i>Sim Ch'üing Ch'ün</i> (심청전); <i>Thousand Character Classic</i> (千字文); <i>So-hak</i> (小學); <i>Ch'üing Ku Ak Chang</i> (靑丘樂章)
	Homer B. Hulbert, "Korean Survivals" (1900)	<i>Mun-hon Tong-go</i> (文獻通考); <i>Sok-mun Heun-tong-go</i> (續文獻通考); <i>Il-tong-ji</i> (一統志); <i>Süing-gyüing-ji</i> (盛京地); <i>Korean Repository</i> ; Buddhist stories[불교 설화]; Korean folk-lore[한국의 민담, 설화- 혁거세, 석탈해, 주몽]; The stories of filial love and other Confucian themes[효행 등 유교 설화]
	George H. Jones, "Ch'oe Ch'i-wun: His Life and Times" (1903)	J. S. Gale, "The Influence of China upon Korea," <i>Transactions</i> Vol. I, R. A. S. Korea Branch  S. Wells Williams, <i>The Middle Kingdom</i> ;  Vide Macgowan, <i>History of China</i> ;  Maurice Courant, <i>Bibliographic Coreenne</i> ; The native biographies on Ch'oe Ch'i-wun; Hyun Sip-ch'ö si(賢十抄詩); <i>Mun-hun-pi-go</i> (文獻備考); <i>Tai-tong-un-ko</i> (大東韻考); <i>Yul-yo-geui-sul</i> (燃藜記述); <i>Tong-mun-sun</i> (東文選, Selections from Korean Compositions); <i>The Kei-wun-p'il-kyung-jip</i> (桂苑筆耕集, The Furrows of a Chinese Pen in a Garden of Cinnamon Trees)
종교	George H. Jones, "Inscription on Buddha at Eun-jin"(1900)	[논산 관촉사 은진미륵 비문]

	George H. Jones, "Korea's Colossal Image of Buddha" (1900)	[저자의 답사; 설화; 은진미륵 비문; 한국 역사가에게 전해 들은 충남 논산 강경리 지역사; 이색이 지은 시 한 수]; <i>Yü-ti Seung-nam(輿地勝覽)</i>
	George H. Jones, "The Spirit Worship of the Koreans"(1902)	[무당의 굿, 서낭당, 제사 같은 한국의 종교현상을 저자가 직접 관찰한 기록; 한국인에게 전해 들은 오방장군·도깨비·산신령·토지지신·존신·도깨비·사귀·용 등에 대한 설화]; the creed of the Shaman spirit worshipper
종교	Mark N. Trollope,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Buddhism in Korea"(1917)	Prof. Rhys Davids, "Buddhism: being a sketch of the life and teachings of Gautama the Buddha", Twenty third thousand, S.P.C.K. London, 1912. Aruthur Lloyd, M. A., <i>The Creed of Half Japan</i> , London, 1911. Reginald Stephen Copleston, D. D., <i>Buddhism, primitive and present, in Magadha and Ceylon</i> , London, 1892. Wade Giles, <i>History of Chinese Literature</i> . Mayers, <i>Chinese Reader's Manual</i> . Mr. Beal, <i>Catena of Buddhist Scriptures from the Chinese</i> . _____, <i>Life of Hiuen Tsiang</i> . Hackmann, <i>Buddhism as a Religion</i> , London, 1910. Eitel, <i>Handbook of Chinese Buddhism</i> . Pal Syang Rok(捌相錄, 팔상록); Sam-kouk-sa(三國史, 삼국사); Tong-kouk t'ong-kam(東國通鑑, 동국통감); [법주사, 회암사, 석굴암 등 한국 사찰을 직접 답사하여 얻은 정보, 관찰 기록]
	Mark N. Trollope, "Kang-Wha"(1902)	The old native maps of Korea; <i>Korean Repository; Text-book of Korean Geography(大韓地誌)</i> ; Pere Dallet, <i>Histoire de l'Eglise de Corée</i> ; Edward Gibbon, <i>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i> ; Griffis, <i>Corea, the Hermit Nation</i> [저자의 답사와 거주 경험, 구전 설화]
지리	E. Wade Koons, "Afforestation in Korea"(1915)	Latest Korea(最近朝鮮事情, 1914); Maps from the Forestry Bureau(森林課) of the Government-General; [저자의 현장 답사 기록]
	W. W. Taylor, "Korean Roads Past and Present" (1924)	James S. Gale, <i>Korean Sketches</i> ; [조선총독부의 도로건설사업 보고서와 통계, 사진 자료]
풍습	Arthur H. Lay, "Marriage Customs of Korea" (1912-1913)	<i>China Review</i> Vol. VI Si Hang Kalye H'wi Chan(時行簡禮彙纂); Sa-rye Pyöl-Ham(四禮便覽); Imperial Order(August 14, 1907); Census Registration Law(1909); Cheguk Shinmun(帝國新聞, 1906); [저자가 직접 관찰한 기록, 한국인에게 들은 이야기]

<p>풍습</p>	<p>James S. Gale, "Selection and Divorce"(1912-1913)</p>	<p><i>So-hak</i>(小學, Lesser Learning); <i>Ch'on-keui Tai yo</i>(天機大要)</p>
<p>과학</p>	<p>W. Carl Rufus, "The Celestial Planisphere of King Yi Tai-Jo"(1912-1913)</p> <p>N. H. Bowman, "The History of Korean Medicine"(1915)</p>	<p>A Chart of the Regular Divisions of the Ce-lestial Bodies(天象列次分野之圖); Mun-hun-pi-go(文獻備考 the great Korean Encyclopedia); the Sam-kuk-sa(三國史); Kuk-cho-po-gam(國朝寶鑑) Vol. 2; Tai-tong Ya-seung(大東野勝) Vol. 5; Mun-hun-rok(文獻錄), Vol. 1</p> <p>Hulbert, <i>History of Korea</i>; <i>Korea Review</i>, Vol. 1-2; Legge, <i>Chinese Classics</i>, Vol. 3; Griffis, <i>The Hermit Nation</i>; T. W. Kingsmill, <i>Proceedings of China Branch of Royal Asiatic Society</i>, Vol. 26; Jones, "The Spirit Worship of the Koreans," <i>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Royal Asiatic Society</i>, Vol. 2; Courant, <i>Bibliographic Coreenne</i>, Vol. 3, p. 28-29.</p> <p>[중국 의서, 연대순] 본초(本草, Pon-cho)(An original manuscript); 황매소문(黃帝素問, Whang-chai-so moon) (A treatise on medicine); 황매령추경(黃帝靈樞經, Whang-chai-yung-choo kyung) (A treatise on medicine); 경약전서(景岳全書, Kyung ak-chun-saw) (A treatise on medicine); 의학입문(醫學入門, Wee-hak-eep-moon) (A medical primary); 금계옥함경(金櫃玉函經, Kum gay-ok-ham-hyung) (A treatise on medicine); 동원십서(東垣十書, Tong-won-sip-saw) (A library of ten volumes on medicine); 하간록서(河間六書, Ha-kan-yuke-saw) (A library of six volumes on medicine); 난경(難經, Nan-kyung) (A list of diseases not hard to control); 동인경(銅人經, Tong-eeen-kyung) (A treatise on medicine and anatomy); 천금방(千金方, Chun-kum-pang) (A treatise on medicine); 의학정전(醫學正傳, Wee-hak-chung-chun) (A treatise on medicine); 만병회춘(萬病回春, Man-pyung-whay-choon) (A remedy for every ill); 증치준승(証治準繩, Choong-che-choo-sung) (A rule of control in disease); 본초강목(本草綱目, Pon-cho-kang-mok) (A revision including the general features of the original Pon-cho);</p>

과학	N. H. Bowman, "The History of Korean Medicine" (1915)	<p>장씨투경(張氏類經, Chang-se-you-kyung) (A treatise on medicine);  의문법률(醫門法律, Wee-moon-paup-yule) (A law of medicine);  의종금감(醫宗金鑑, Wee-chong-kum-kan) (Instructions for first aid);  침구대성(針灸大成, Chim-koo-tai-syung) (A treatise on acupuncture by needle and cauterly);  [한국 의서, 연대순]  위생의방선요(衛生醫方選要, Way-saing-wee-pang-syenyoy);  동의보감(東醫寶鑑, Tong-we-po-kan) (A valuable treatise on Oriental medicine);  제증신편(濟衆新編, Chai-choong-sin-pyun);  방약합편(方藥合編, Pang-yak-hap-pyun) (A treatise of medicine containing prescriptions)</p>
경제	Charles T. Collyer, "The Culture and Preparation of Ginseng in Korea"(1903)	<p>figures from the Customs authorities [세관보고서];  [저자의 관찰·답사 기록]</p>
	Edwin W. Mills, "Gold Mining in Korea"(1916)	<p>[운산, 수안, 직산 광산 관계자들에게서 얻은 1915년도 금 생산량 통계자료;  조선총독부 농상공업부의 1905-1914년도 조선 금 생산 보고서;  미국 영사 Raymond S. Curtice가 작성한 1884-1915 조선 금 생산량 자료; 저자의 현장 답사]  Annual Report on Reforms and Progress in Chosen, 1913-1914(1915);  Koto, <i>The Journal of the College of Science</i>, Imperial University of Tokyo, Japan, Vol. XIX Article 1, 1903.  Hulbert, <i>The History of Korea</i>, Vol. 1, Seoul, 1905.  Longford, <i>The Story of Korea</i>, London, 1911.  <i>The Mining Journal</i>, London, Oct 1909.</p>
기행문	Hendrik Hamel, "Account of the Shipwreck of a Dutch Vessel on the Coast of the Isle of Quelpart, With Description of the Kingdom of Korea"(1918)	<p>[저자의 거주 경험]</p>
	James S. Gale, "The Diamond Mountains"(1921)	<p>[저자의 답사 기록, 현지에서 수집한 지역 설화]  Kwun keun(權近)'s poem;  Yi Whang(李滉)'s preface and Yool-eok(粟谷)'s tribute from Hong Eung-kil(洪應吉)'s book on the Diamond Mountains;  an inscription of Chang-an-sa(長安寺) written by Yi-kok(李穀);  Myung-boo Sa-sin-nok(명부사신록, <i>the Book of Hell</i>)</p>

## 참 고 문 헌

### 1. 1차 자료

- Bowman, N. H., "the History of Korean Medicin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VI, No. 1, 1915, pp. 1-34.
- Collyer, C. T., "the Culture and Preparation of Ginseng in Korea."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III, 1903, pp. 18-30.
- Gale, James S., "the Influence of China upon Korea."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I, No. 1, 1900, pp. 1-24.
- \_\_\_\_\_, "Selection and Divorc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IV, No. 3, 1912-1913, pp. 17-22.
- \_\_\_\_\_, "the Diamond Mountains."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XIII, 1922, pp. 1-67.
- Hamel, Hendrik, "Account of the Shipwreck of a Dutch Vessel on the Coast of the Isle of Quelpart, with Description of the Kingdom of Korea."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IX, 1918, pp. 91-148.
- Hulbert, Homer B., "Korean Survivals and Discussion."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I, 1900, pp. 25-50.
- Jones, George Heber, "Korea's Colosal Image of Buddha."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I, 1900, pp. 57-70.
- \_\_\_\_\_, "The Spirit Worship of the Koreans."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II, No. 1, 1902, pp. 37-58.
- \_\_\_\_\_, "Ch'oe Ch'i-Wun: His Life and Times."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III, 1903, pp. 1-17.
- Koons, E. Wade, "Afforestation in Korea."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VI, No. 1, 1915, pp. 35-42.
- Lay, Arthur Hyde, "Marriage Customs of Korea."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IV, No. 3, 1912-1913, pp. 1-15.
- Lew, Young Ick, "Contribution by Western Scholars to Modern Historiography in Korea, with Emphasis on the RAS-KB1."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80, 2005, pp. 3-18.
- Mills, Edwin W. "Gold Mining in Korea."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VII, 1916, pp. 5-39.
- Paik, Lak-Geoon George, "Seventy Years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in Korea."

-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47, 1972, pp. 25-39.
- Reischauer, E. O. and G. M. McCune, "the Romanization of the Korean Language Based on its Phonetic Structur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XXIX, 1939, pp. 1-55.
- Rufus, W. Carl, "the Celestial Planisphere of King Yi Tai-Jo [Yi T'Aejo]."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IV, No. 3, 1912-1913, pp. 23-72.
- Taylor, W. W., "Korean Roads Past and Present."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XV, 1924, pp. 33-56.
- Trollope, Mark N., "Kang-Wha [Kanghwal]."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II, No. 1, 1902, pp. 1-36.
- \_\_\_\_\_,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Buddhism in Korea."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VIII, 1917, pp. 1-41.

## 2. 단행본

- 강상중,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1999.
- 김종서, 『서양인의 한국 종교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6.
- 박정신, 『한국 기독교사 인식』. 해안, 2004.
- 에드워드 사이드 저, 박홍규 역, 『문화와 제국주의』. 문예출판사, 2005.
- 주희 저, 윤호창 역, 『소학』. 홍익출판사, 2011.

- Anthony, Brother. *Discovering Korea at the Start of the Twentieth Century*. Seo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Press, 2011.
- Kim, Kyeong-il, *Pioneers of Korean Studies*. Seongnam: Academy of Korean Studies, 2004.
- Wang, Hui, *Translating Chinese Classics in a Colonial Context: James Legge and His Two Versions of the Zhongyong*. Bern: Peter Lang AG, 2008.

## 3. 논문

- 류대영, 「국내 발간 영문 잡지를 통해서 본 서구인의 한국 종교 이해, 1890-1940」. 『한국 기독교와 역사』 26권, 2007, 141-175쪽.
- 이상훈, 「구한말 미 개신교 선교사들의 대한 인식」. 『근대성의 형성과 종교지형의 변동 I』,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국 문 초 록

본 논문에서는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RASKB)의 정기 학술지 『트랜스액션』의 초기(1900-1924) 논문을 비판적으로 탐색했다. 연구 목적은 정치사회적 격변기를 지나던 20세기 초 한국을 서구인이 어떻게 인식했으며, 어떤 자료를 근거로 그러한 인식을 형성했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탈식민주의 시대를 맞이한 21세기에 개항기 한국을 표상(represent)했던 서구인의 저작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트랜스액션』은 오리엔탈리스트 담론의 일부였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초기에 발행된 논문들을 1차 자료로 삼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각 논문의 참고자료를 해제하여 별도의 표로 제시했으며, 저자가 한문이나 한글 자료를 인용했을 때 해석상 오류가 발생한 사례를 지적하였다. 또한 논문에 나타난 저자의 관점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당시 문명론자·관찰자·내부자의 세 가지 관점으로 한국을 인식했으며, 대다수 저자에게서 여러 관점이 중첩된 것을 발견했다. 이 외에도 당시 영어로 쓰인 논문에서 한국어의 로마자 음역 표기 방식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 기독교 배경을 가진 저자가 자신의 견해를 성경에서 비롯된 표현과 비유를 사용하여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이 해석상 유의할 점으로 지적되었다. 이 같은 탐색적 연구를 통해 오늘날 영·미 등 서구인들의 대한(對韓) 인식의 뿌리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향후 『트랜스액션』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투고일** 2017. 6. 23.

**심사일** 2017. 7. 4.

**게재 확정일** 2017. 8. 24.

**주제어(keyword)** 왕립아시아학회(Royal Asiatic Society), 『트랜스액션』(*Transactions*),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대한 인식(perception of Korea), 문명론자(civilizationist), 관찰자(observer), 내부자(insider)

